

# 환우들과 차 한잔 ‘훈훈’

## 광주 불자 차인회, 화순 전남대병원에 무료 다원 개설

광주지역 불자 차(茶)인들이 종합병원에 ‘차 한잔의 쉼터’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현장은 화순 전남대 병원 1층 로비. 매주 수요일이면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 의료진을 위한 무료다원이 열린다.

차 한잔의 쉼터에 참여하는 다회는 중심사 자향회(주지 진화), 원각사 다도반(주지 도제), 덕림사 다도반(주지 무이), 한꽃 차문화아카데미(원장 이해자) 등으로 매주 돌아가며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무료다원이 개설된 것은 2년 전부터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와 손잡고 소아암환우 돕기 사업을 펼치던 자비신행회 부설 한꽃 차문화아카데미가 행사 때마다 무료다원을 열었다. 다원이 열릴 때마다 1000여명에 이르는 환우와 가족들이 참석하자 전남대병원측에서 상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일에도 어김없이 차 한잔의 쉼터는 열리고, 병원 방문객에게 따뜻한 우려차가 제공됐다.

이날 봉사팀은 중심사 자향회(회장 윤명희), 11시경 다원이 열리자 병원을 찾은



광주 중심사 자향회 회원들이 화순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우들에게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우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던 김순덕(63)씨는 “항기로운 차향을 맡으며 우리차를 마시니 병원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가 사라지는 듯 하다”며 “매일 한잔씩만 마셔도 병이 빨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향회가 제공한 우리차는 뽕잎과 감잎, 은행잎으로 만든 삼경차와 과일차. 과일차는 자향회 회원들이 전남 중심사에서 배 사과, 대추, 생강 껍 등 과일들을 넣고

하루종일 끓였다. 이런 정성을 아는 듯 준비된 500잔이 두시간만에 바닥이 나고 말았다.

차 한잔의 쉼터를 이끌고 있는 자비신행회 김영섭 국장은 “우리차를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병원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있다”며 “환우와 함께하는 다도시엔, 들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 선각종 광주교도소 독경대회

선각종 총무원 윤천사원장 정암은 11월 24일 광주교도소 강당에서 제7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찬불가와 독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진의 하나이다”며 “평소 독경을 생활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연대회에 출연한 불자 재소자들은 평소 준비한 찬불가와 발원문, 천수경, 정근 등을 발표했다.

또한 경연대회에는 광주 미륵사(주지 목인) 신도들이 출연해 ‘인과응보’를 주제로 연극을 시연했다.

이준엽 기자

### 광주 한마음선원, 이웃과 감동 담기



한마음 선원 광주지회 신도회(회장 최성후)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웃위한 감동담기’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매년 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을 위해 감동담기 행사를 마련하는 신도회는 금년도에 우산복지관, 생명나눔, 연꽃세상 등 13개 복지시설에 감동담기 250여 통을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 충북 자원봉사 릴레이 마감

#### 옹화봉사단, 도지사상 수상

충북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충북 종교계 사랑의봉사 릴레이가 12월 7일 자원봉사자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청주 옹화사 충북불교대학 옹화봉사단이 충북도지사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용인대 이보규 교수의 21세기 사회변화와 자원봉사의 역할 강연을 비롯해 자원봉사 영상물 상영, 유공단체 표창, 육천 대성사의 사랑의봉사 릴레이 깃발 반납 등으로 진행됐다.

혜철 대진 충북지사장

###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 정원채

재가화엄학림 학장



광주지역 신행단체가 모여 개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지난주 성황리에 끝났다. 매년 강좌가 시작되기 전, 강의실 입구에서 환한 미소로 합장하며 불자들을 일일이 맞이하는 이가 있었다. 재가화엄학림 정원채(67·수광·사진) 학장이다.

“교육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집필력이 교육입니다. 불교교육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할 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 학장의 교육관은 “배우고 실천하자”이다. 사찰에 열심히 나가고,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며 깨침을

무를 시작하는 정 학장은 어려서부터 불자였던 것은 아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타종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어느날 가까운 친구가 “깨끗하게 늙자”며 불교를 소개했고 “나와 남이 함께 이로운 보살행, 자리아타(自利利他)”에서 무릎을 쳤다.

그동안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相生)’이 남은 여생의 지점으로 다가왔다. “부처님은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웃과 국도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야말로 깨끗한 세상이겠지요. 이것이 깨끗하게 늙는 방법입니다.”

정 학장은 연젠가 100일간 108참회

## “받으며 산 인생, 회향하며 살터”

“교육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 자비행 앞장

항해 두뼘뼘씩 걸어가는 불자가 되자는 것이다.

실천하는 불자이기를 강조하는 정 학장도 강의실에서는 항상 피교육생이 된다. 어느 학인보다도 열심히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에는 남보다 먼저 앞선다.

정 학장의 주된 봉사도량은 광주를 대표하는 불교 봉사단체인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회이다. 생명나눔 캠페인에서는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담당하곤 한다. 재가학림 학장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은 인연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정 학장은 1966년 처음 교단에 서기 시작해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이다. 3년전 광주 중앙여고 교장으로 퇴임하던 날 “그동안 받으며 살았다”며 “이제는 회향하며 살겠다”고 선언했다.

학교에 재직중에도 그러했지만 퇴직 후에도 매달 받는 연금의 10%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생활의 대부분이 불교교육과 봉사활동이어서 그나마 남은 여분도 자신을 위하기보다 이웃에 환원하는 편이다. 매일아침 직접 목탁치며 예불로 하

정진을 했다. 기도가 끝나고 주위에서 얼굴이 맑아졌다는 덕담을 들었다. 참회로 정화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실천 행에 힘쓰기로 했다.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면 “불교인 되더니 얼굴이 해맑다”고 한다. 이웃에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얼굴도 맑아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낀다. 이렇듯 정 학장은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는 모습만으로도 포교하는 포교사이다.

정 학장이 맡고 있는 광주 재가화엄학림은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의 교육과정을 재가불자를 위해 개편한 불교교육기관이다. 교과과정뿐 아니라 실상사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맡고 있어 인기가 높다. 정 학장은 2007학년도부터 2년제의 재가화엄학림 학제를 평생교육원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제 배우는데 끝이 있었습니까.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함께 공부해야죠.”

이준엽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 광주동구불교협 창립 2주년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회장 해광)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2월 7일 옹화정사에서 기념법회 및 신임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장 금명 스님, 선암사 前 주지 금용 스님, 영산회장 해광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유태명 동구회장,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대회장으로 취임한 해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예로부터 큰스님들은 호남 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고 강조했다”며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서도 불교 일선지역 동구불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불교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임 회장 지각 스님(광주불교교사협회 회장은 이임사에서 “2년 전 지역불교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동구 지역 사암 스님들이 모여 협의회를 창립했다”며 “지역의 원로스님을 받들어 화합하고 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구불교사암연합회는 관내 50여개 사암 스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지역사암 힘 모아 불교대학 유치”

interview 2대 회장 취임한 해광 스님

“무등산이 자리한 동구는 광주불교의 얼굴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불교협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월 7일 광주동구불교협의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해광 스님(옹화정사 주지·사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각 사암 스님, 신도대표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광 스님은 “먼저 동구 지역 불교의 역량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세워 호남지역의 미래불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 또한 스님은 “포교의 시작은 불교교육에 있다”며 “지역사암과 힘을 모아 불교교양대학을 유치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신임 회장 해광 스님은 1970년 서울 법륜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선암사 강원 대교를 1회로 졸업하고 동방불교대학,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광주 교도소 교화위원, 향토사단 향상을 역임하고 광주 남부경찰서 경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명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겹쳐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법패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5)943-6570 / 중부총무원 043)855-3351~2

## 봉행

# 삼삼조사 추모재

귀의 삼보하옵니다.

푸른 산기슭에 금빛의 문양이 새로운 시절, 영축산 극락호국선원에서는 불조 이래 봉행해 온 삼삼조사 추모재를 올해도 어김없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해 온 추모재로 부처님 이래 법등을 밝혀 온 제자들을 위한 전통적 불교의식으로서 일찍이 경봉대선사(1892~1982)께서 역대 조사의 재를 모시는 곳이 국내에 한 곳도 없음을 탄식하시며 극락선원에 조사각(삼삼전)을 세우시고 40여 년 전, 창설하신 뜻 깊은 추모재입니다.

삼삼조사란 부처님을 시작으로 가섭 아난과 달마 등 인도의 선지식과 혜가 승찬에서 육조 혜능 조사 등 33인의 선지식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선맥을 이어오신 보조 지눌, 태고 보우 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일년에 한 차례 추모재를 지내는 것을 삼삼조사추모재 라고 합니다.

아울러 불조봉찬(佛祖奉讚)이란 불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조의 혜명을 잇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삼삼조사 기일을 맞아 점점 멀어져가는 수행 가풍을 되새기고 불법을 수호하려는 뜻 깊은 의식에 교계 대덕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과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 최: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불조봉찬회
- 일 시: 2006년 12월 19일 화요일(음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조사각(삼삼전)
- 문 의: ☎ 055)382-7083